

# ‘세계 축구 대통령’ 아시아냐, 유럽이냐

## 인판티노 UEFA 사무총장 세이크 살만 AFC 회장 2과전으로 압축 상태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누가 세계 축구 대통령으로 등극할지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

FIFA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FIFA 본부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5선에 성공한 제프 블래터(80·스위스) 전 회장이 뇌물 비리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열리게 됐다.

후보자는 총 5명이다. 지아니 인판티노 유럽축구연맹(UEFA) 사무총장과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 제롬 샤파뉴 전 FIFA 국제국장, 세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 남아공의 백만장자이자 정치 운동가 토코 세칼레 등이다.

이중에서도 인판티노 UEFA 사무총장과 세이크 살만 AFC 회장의 2과전으로 압축된 모습이다.

2009년부터 UEFA 사무총장직을 수행 중인 인판티노는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 중인 UEFA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남아미축구연맹(CONMEBOL)이라는 탄탄한 기반까지 확보했다.

인판티노 사무총장은 월드컵 출전국을 현재 32개국에서 40개국으로 늘리고 1~2개국이 아닌 여러 나라에서의 동시 개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맞설 세이크 살만 회장은 아프리카 축구연맹(CAF)과 사이가 좋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AFC의



지난해 5월 제프 블래터 전 회장이 뇌물비리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비어있는 국제축구연맹 회장의 빈자리

지지만 굳건한 편이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세이크 살만 회장의 당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세이크 회장이 당선에 성공할 경우 FIFA 112년 역사상 첫 아시아인 수장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비례인족구협회 회장직을 맡던 지난 2011년 축구선수 인권 확대 시비 논란 휘말린 점과 2009년 AFC 회장 선거에서 FIFA 지원금을 유음했다는 의혹들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블래터 회장의 측근으로 비리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는 점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블래터의 5선 성공 당시 유일하게 대항마로 나섰던 알리 왕자는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낸다. 당시 알리 왕자는 당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1차 투표에서 73표를 얻는 저력을 뽐냈다.

하지만 블래터와의 2과전이 아닌 다자간 경쟁 구도에서는 승산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알리 왕자가 이미 유럽과 북중미 등에서 지지를 모두 잃었다고 보고 있다.

블래터와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의 도움으로 FIFA에 입성한 샤파뉴 전 국제국장과 아프리카 및 여자축구 발전을 내

세운 세팔레 역시 당선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분류된다.

회장 선거는 2009개 회원국들의 투표로 진행된다. 아프리카축구연맹이 가장 많은 54표를 행사하고 유럽축구연맹이 53표로 뒤를 잇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46표)과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35표), 오세아니아축구연맹(11표), 남아미축구연맹(10표) 순이다. 당선을 위해서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차 투표에서 다득표로 승부를 가린다.

/김민근기자

## ‘커리·탐슨 4쿼터 폭발’ GSW, 마이애미에 승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75점을 합작한 ‘스플래쉬 브라더스’의 4쿼터 활약을 앞세워 마이애미를 점진 끝에 물리쳤다. 골든스테이트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아메리칸에어라인스 아레나에서 펼쳐진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마이애미 히트와 원정경기에서 118-112로 승리했다.

스테픈 커리는 경기 막판 승기를 가져오는 3점슛 2방을 포함해 42점 7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맹활약을 펼쳤다.

커리는 이날 3점슛 6개를 넣으며 127경기 연속 3점슛 기록을 이어갔다. 커리의 파트너 클레이 탐슨도 33점을 넣으며 동반 폭발했다. 탐슨은 4개의 가로채기를 기록하며 수비에서도 돋보였다. 특히 물의 4쿼터 활약이 팀승리에 있어 결정적이었다. 커리는 104-106으로 끌려가던 종료 1분6초 전 경기를 뒤집는 3점슛을 성공시킨데 이어 상대 자유무 득점으로 108-107로 쫓기던 38.3초전에는 또 다시 달아나는 3점포를 쏘아 넣었다. 탐슨 역시 승부차인 4쿼터 커리가 벤치를 지키는 사이 팀의 공격을 이끌며 3점슛 3개 포함 무려 17점을 집중시켰다.

/김민근기자

## FIFA, 블래터·플라티니 징계 2년 줄여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전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전 회장에 대한 징계가 다소 축소됐다.

25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FIFA 소청심사위원회는 블래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의 자격정지 기간을 8년에서 6년으로 줄였다.

FIFA 소청심사위는 성명을 통해 “블래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이 수년간 FIFA와 UEFA, 그리고 축구 전반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적당량의 징계 축소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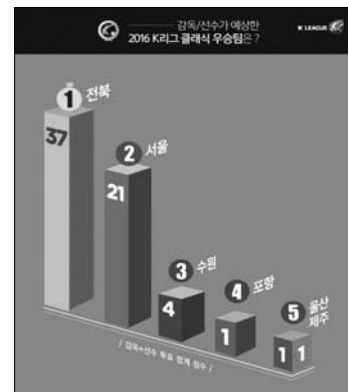
FIFA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블래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에게 각각 5만 스위스프랑(약 6000만원), 8만 스위스프랑(약 9500만원)의 벌금과 함께 향후 8년간 축구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했다.

이번 소청심사위의 결정으로 축구계 복귀가 2년이나 빨라졌지만 블래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들은 당초부터 자신들은 무죄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블래터 회장은 성명을 통해 “깊이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차기 FIFA 회장선거에서 후임자에게 바쁨을 넘겨주고 명예로운 은퇴를 그리던 그의 꿈도 산산조각 났다.

/김민근기자

# 성큼 다가온 K리그 클래식 우승후보 1순위는 전북 현대



## 11개 구단 전체 투표자의 81.8%가 우승 꼽아...대항마로는 서울

2016년 K리그 클래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구단 감독과 주장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전북 현대가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수원FC를 제외한 클래식 11개 구단 감독과 주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승후보 설문조사결과 전북이 1순위 18표(38점), 2순위 1표(1점) 등 총 37점을 획득해 FC서울(21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설문 답변은 2순위까지 받았다. 1순위에 2점, 2순위에 1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격팀 수원FC는 “K리그 클래식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팀으로서 아직은 다른 팀과 선수를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절했다.

11개 구단 중 8개 구단의 감독과 10개팀 주장은 1순위 투표로 전북의 K리그 3연패를 예상했다. 전체 투표자의 81.8%가 1순위에 전북을 적었다.

설문 결과처럼 전북이 우승을 차지하면 13년 만에 K리그 3연패 기록이 세워진다. 앞서 성남 일화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세 시즌 연속 정상에 올라 처음으로 3연패

를 달성했다.

전북의 대항마로는 서울이 꼽혔다.

최강희 전북 감독과 김학범 성남FC감독은 서울의 우승을 1순위로 점쳤다. 전북의 주장 권순태도 서울에 한 표를 던졌다.

최용수 서울 감독은 포항 스틸러스를 우승후보 1순위로 뽑았다.

한편, K리그 클래식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서울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김민근기자

## 우즈 스크린 연습 동영상 올려 건재 과시

지난해 9월 두 번째 허리수술을 받은 뒤 재활에 집중하고 있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1·미국)가 스크린골프 연습 동영상을 올리며 건재를 과시했다.

우즈는 25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9번 아이언으로 샷을 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13초 길이의 동영상에서 우즈는 샷을 날렸고 공은 그린에 무사히 안착했다. 우즈는 트위터에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글도 함께 올렸다.

앞서 현지 언론에서는 우즈가 허리수술을 받았지만 차광에 있는 것도 힘들어 할 정도로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결국 우즈는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면서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동영상도 올린 셈이다.

우즈의 에이전트인 마크 스테인버그도 “이번 동영상은 우즈에 대한 루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팬들의 우려를 씻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민족의 얼을 광복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